

성병이란 ?

성병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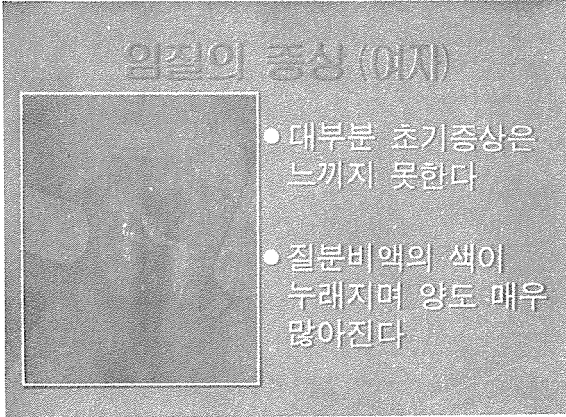
모든 성병은 현대의학으로 완치 될수 있다.
방황하지 말고 후회하는 생활이 안 되도록,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하여 무서운
성병을 자녀에게 물려 주는 일이나, 불임증등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편집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함께 성장, 발전해 온 질병이 있다면 부끄럽게도 그것은 성병이다. 이와같은 성병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감염율을 나타냈던 해는 1949년이다. 그이유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군인들이 전지의 여인들로 부터 얻은 성병을 묻혀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니실린이란 강력 항

생제가 등장하여 점점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만연하는 고질적인 전염병이다. 성행위란 인류의 존속과 번식을 위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오만한 인간들이 이와같이 성스런 행위를 쾌락만을 위해 남용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즐기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도덕과 규범을 휴지처럼 구겨 버리고 되는데로 성행위를 자행하기에

이르렀고,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의 정신적인 타락과 가치기준의 변화는 이런 풍조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그러나 하 나남은 성의 쾌락만을 인간에게 선물 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 고통을 받는병 또한 선물한 것이다. 즉 성병은 성행위를 통해 감염, 전파되는 질환이라서 성인병(性因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S, T D(Sexually, Transmitted Diseases)라 부르기도 한다. 성행위에 의하면 감염, 전파되는 질환은 다음과 같다. 1. 세균 감염 : 임질, 비임균성 요도염, 매독, 연성하감, 서혜육아종. 2. 바이러스감염 : 성병성 임파육아종, 성기포진(성기 헤르페스), 콘딜로마. 3. 원충감염 : 트리코모스 감염, 아메바성 요도염 4. 곰팡이균 감염 : 칸디다증 5. 기생충 감염염, 게지라미(털이). 이밖에도 최근에 발견된 성병으로 문제되는 것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이라는 질환이나,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요소를 생산하는 임균에 의한 요도염등이 있어 주의를 끌고 있다. 요컨데 과거에는 없었던 혹은 몰랐던 질환들이 속속 성병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것은 임질과 매독이다. 임질은 매독보다 약30배나 더 많이 감염되었으며 임질에 감염이 되면 성행위가 있은후 빠르면 24시간만에, 늦으면 1주일 또는 1개월이 될수도 있으나 대개는 2-3일만에 그 증상이 나타난다. 남자의 경우 처음에는 요도 끝이 부은듯하면서도 불쾌감이 있고 소변

을 볼때는 따가움을 느끼며 이어서 누런 고름이 나온다. 여자의 경우는 임질에 걸려도 처음에는 별로 증상이 없이 지내는 수가 80% 정도나 되는데 이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일수도 있으나, 그동안에 병균은 점차 요도나 자궁경관, 난관 또는 난소를 침범하게 되어 질분비액의 색이 누렇게 되며 양도 많아진다. 시간이 지나면 통증, 소변횟수증가, 아랫배가 아프거나 외음부가 붓기도 한다. 이상태가 계속되면 난관염을 일으켜 난관이 막힘으로서 불임의 원인이 될수도 있고 또한 난소염이나 복막염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매독은 성병중 가장 무서운 것이며 생후에 성관계 혹은 불의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을 후천성 매독이라 하며 진행과정 증상에 따라 1기, 2기, 3기 만기 매독으로 구분된다. 어머니의 배안에서 감염된 매독을 선천성 매독이라 한다. 매독균의 감염은 피부에 발생하는 아주 작은 상처를 통해 매독균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행위에서 생기는 피부나 점막의 작은 상처를 통해 보건자의 성기 또는 병소 부위에 있던 균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제 1기 매독의 증상은 접촉된 부위의 귀두부, 표피, 외음순, 질, 자궁경부등에 흠집 즉 경질이 생기는 것이며 제 2기 매독 증상은 매독진으로 피부나 점막에 쌀알보다 작은 붉은 발진(장미진)이 나타나게 되며 음부에 콘디로마라 하는 사마귀와 같은 더더귀가 생기고 또다른 특징은 머리털이 빠지는 탈모증이 오며 한번 빠진 머리털은 쉽



여자는 임질에 걸려도 처음에는 별로 증상없이 지내는 수가 80% 정도나 되는데 이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수도 있으나, 그동안에도 병균은 점차 요도나 자궁경관, 난관 또는 난소를 침범하게되어 질분비액의 색이 누렇게 되며 양도 많아집니다.

“개인의 비밀은 절대보장, 평생을 후회하지 말자.”

게 다시 나오지 않는다. 제 3기 증상은 감염된지 2년이상 경과된후에 나타나며 발진형이 아니고 결절이라 하여 단단한 종기(고무종)가 나타나며 점차 퍼져 이마, 코, 입술, 가슴, 다리등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만기매독은 병균이 전신에 퍼져 뼈, 신경, 뇌, 혈관등을 침범하여 정신병자가 되거나 사망하기도 한다. 만기매독의 증상은 10년 또는 무려 30년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무서운 성병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하며 만약 불미스런 성행위등을 했을때는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적절한 검사및 치료를 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성병을 조기발견 조기 치료토록 하기위하여 성병진료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의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무료로 진료를 받을수 있다. 진료를 받고 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보건소를 포함한 전국의 의료보호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으며 개인의 비밀은 절대로 보장된다. 아울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 인천, 충북, 충남, 전남 지부에서는 성병검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지부에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다. 끝으로 모든 성병은 현대의 학으로 완치될수 있다. 방황하지 말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서운 성병을 자녀에게 물려 주거나 불임증등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검사부**